

서남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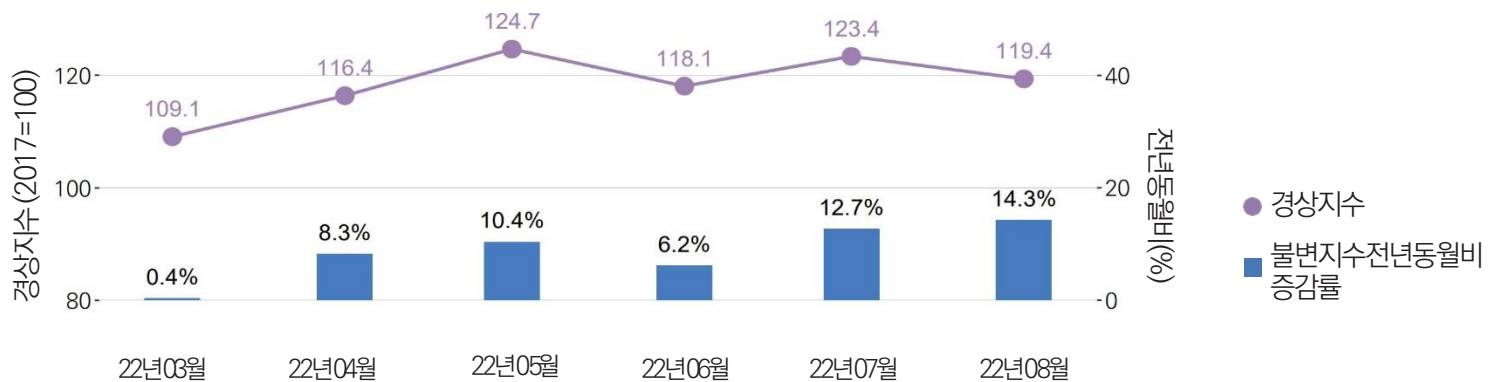
● 서남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4.3% 상승

- 전년동월대비 +14.3% = 소매업의 기여도 +2.2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12.0%p
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※관련설명은부록의7 여도참조

●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3.0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44.4% 상승

- 서남권 소매업은 문화·오락·여가 (7월 -17.0% ⇨ 8월 -14.9%), 기타가정용품(7월 -15.7% ⇨ 8월 -12.4%), 연료(7월 -24.7% ⇨ 8월 -23.4%), 가전제품·정보통신(-10.8%) 등이 감소세를 유지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매(7월 -2.2% ⇨ 8월 2.3%), 음식료품(7월 -4.6% ⇨ 8월 1.0%) 등의 증가세 전환과 기타상품(8.2%) 및 무점포소매(9.0%)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소폭 증가
- 8월 서남권 소매업은 의복·섬유·신발, 무점포소매, 기타상품, 종합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- 반면 연료, 문화·오락·여가, 기타가정용품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음식료품, 종합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- 서남권은 전년동월 부진을 지속하였던 주점·커피전문점(91.6%), 숙박(54.0%), 음식점(33.8%) 등 세부 업종이 높은 증가폭을 유지해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증가하였으나 (전월보다) 오름폭은 소폭 감소
- 8월 서남권 숙박·음식점업은 주점·커피전문점, 숙박, 음식점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.

| 서남권 소비경기지수



| 서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| 서남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